

MEO-P 2021
6월 추진 관련건의

MEO-P 2021

■ **목적**

- MCF 미설립 및 미약한 국가 기독교인 대표 초청
- 한국군선교현장 참관 및 제자훈련실시
- MCF 설립 및 활성화에 기여

■ **추진결과**

- 2005~2020년:163개국 252명 참가(중복국가 포함)
- CATT 개념으로 AMCF 기독교인 리더 양성
주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MEO-P 2021 추진**

- 참가 국가/인원(전년도 확정): 19개국 29명

아시아 (7개국 10명)	스리랑카(2) 방글라데시(1) 인도(1)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3) 타지키스탄(1) 우즈베키스탄(1)
아프리카 (7개국 11명)	우간다(2) 가나(2) 라이베리아(1) 나이지리아(3) 기니비사우(1) 기니(1) 카메룬(1)
유럽 (3개국 4명)	우크라이나(2), 그리스(1), 아제르바이잔(1)
중동 (2개국 4명)	팔레스타인(2), 이라크(2)

- MEO-P 2021 안내서신 발송(MSO 위원장):
올해 참가여부 확인(1월21일)
- ☞ MEO-P 추진일자 통보: 6.21(월)~28(월),
예비일자 10.11(월)~18(월)

○ 온라인 교육준비:2월~3월

- ☞ 주강사 및 부강사 편성, 과목별 교육준비
(교안 및 온라인 강의)

■ MSO 사역추진 의지

- MEO-P 2021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온라인 교육으로도 MEO-P은 반드시 실시

현 상 분 석

■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및 신종바이러스 확산 계속(3.15일 기준)

- 전 세계: 1억2천1백여만명(확진), 2백6십8만여명(사망)
- 국내: 96,017(확진), 1,675(사망)

■ 코로나19 사태 올해 말까지 종식 안된다(WHO)

○ 마이크로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

- 올해 말 코로나 종식된다는 생각, 설부르고 비현실적
- 각국이 현명하게 대응하면 입원, 사망 등 비극은 줄일 수 있지만
- 최근 승인된 백신, 바이러스 폭발적 확산 억제에 도움
- 각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진화는 장담 못해 --낙관론 경제
- 새 변이 바이러스 계속 등장--백신효과 떨어뜨려
-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세

○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 WHO의 6개 지역 중 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 등 4개 지역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
- 확진자 증가 놀랍지 않은 일 -- 방역조치 완화된 결과
- **별다른 방역대책 없이 백신에만 의존하는 건 극히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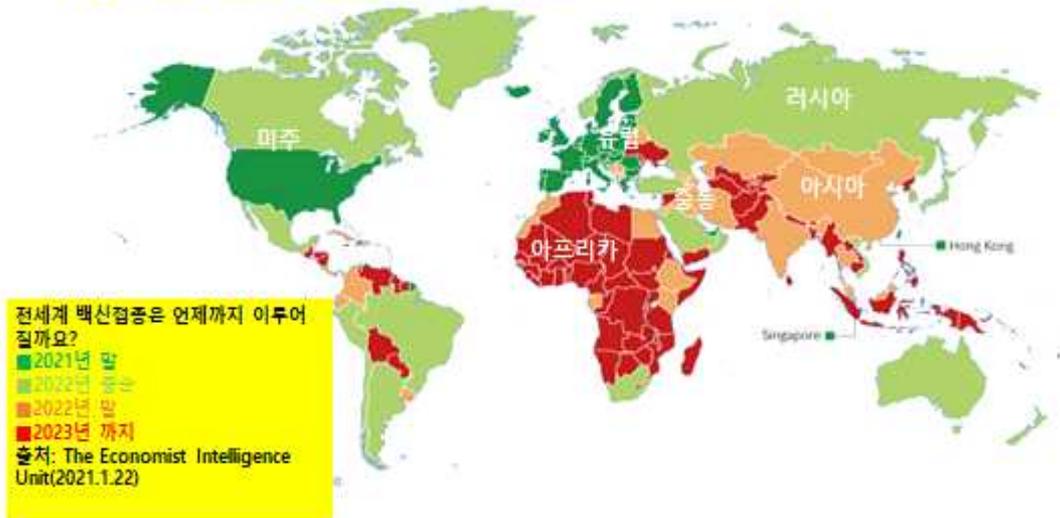
○ 기존백신으로는 변이코로나19 막기 어려워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

- 미국 FDA 승인 3개 백신(화이자, 모드나, 존스런)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제한적

○ 국가별 코로나백신 접종완료 예상시기

○ 코로나 백신치료 언제까지?

빈곤한 지역 및 국가는 백신 보급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 최근에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였으나
의료계 판단대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전 국민을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금년 말에나 가능(정부판단)

■ 입국제한조치 현황(3.17: 출처/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 입국제한 해제(네덜란드 등 12개국)
- 입국금지 조치(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52개국)
- 격리조치(미국 등 10개국)
- 검역강화(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114개국)

■ AMCF 사역활동 지침

(3월 AMCF회장 Weeraasooriya)

-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각국의 MCF활동 회복세 기대
- 각국 MCF 리더 모임을 권장
- 각 지역대회 및 교육사역을 대면 또는 비대면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
- PSO/AMCF 지역대회 회의 및 교육 대부분이 온라인 준비 병행

■ 국군증앙교회 통제

- 현 코로나 대응단계 연장에 따라 3월 28(주일)까지 비대면 예배
- 현역예배도 여전히 영내에서만 가능
- KMCF 6월 구국성회도 Online으로 준비 중

■ MSO 사역 활동

- MSO 목요기도회 3월말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실시
- AMCF/ MSO 회의 온라인으로 진행
- **국내 및 국외 여건이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이 많아 MEO-P 6월 시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 7월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8월 캄보디아 영어캠프를 포함 2021년 사역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 MEO-P 참가국 Visa 발급/항공권 발권 현황

- **비자발급 가능여부(3월 현재)**

구분	국가명	비고
제한 (13개국)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기니, 기니비사우,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우간다, 방글라데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4.10. 이후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긴급성(외교공무출장, 사업목적, 우리국민 가족 등)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방문 비자는 발급이 제한됨.
가능 (4개국)	카자흐스탄, 이라크, 그리스, 가나,	1. 출국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국/영문본 제출 2. 입국 후 14일 격리

☞ 카자흐스탄, 그리스는 무비자이었으나 2020년 4월 13일부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중단되어 한국 방문을 위해 비자가 필요함

- 항공권: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16개국은 항공노선 확인되나 항공료는 예전에 비해 비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로 육로이동 후 탑승 고려
-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각국 항공노선운용 횟수의 제한으로 여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MEO-P 2021 추진 건의

■ 분석 및 건의

구분	6월 추진방안(1안)	10월 추진방안(2안)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으로 입국금지 해제 및 자가 격리조치 해제 • 4월 중 각국 여행 자유화 시행 ☞ 4월 이후 참가국 Visa 발급 /항공권 예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보급으로 전 국민 면역성 회복 • 7월 중 각국 여행 자유화 시행 ☞ 8월 이전 각국의 Visa 발급/항공권 예매 가능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 연말까지 종식 불가(WHO) • 단기비자 발급제한(대부분의 국가) • 입국금지 조치 54개국, 검역조치 강화 114개국, 한국 해외입국자 2주간 격리조치 계속(외교부 안전여행) • MEO-P 2021 6월 추진은 참가자 Visa 발급 제한(13개국), 입국 후 격리조치 2주 적용, 항공권 고가/ 운항제한 	
결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O-P 6월 추진조건 및 상황분석으로 볼 때 •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한국을 포함 참가국가의 참가자 입국 제한으로 6월 추진이 불가함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월로 우선 연기하고 ②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월 추진 불가 시에는 ③ 같은 기간 10.11~18일에 온라인 MEO-P 추진 ☞ 지역별 2일 정도 구분하여 2~3회 추진방법 발전 건의 	

■ 향후추진 계획

- MEO-P 2021 추진 사항을 참가자에게 통보(3월말)
- 오산리기도원 사용 불가통보(4월)
- 온라인 교육준비 계속(강사)
- MEO-P 10월 추진 준비 계속/ 재정지역에서 시행토록 준비